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목 차

1. 서론 : 남아공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	1
2. 남아공 경제동향	3
가. 경제현황 / 3	
나. 최근 경제동향 / 5	
3. 통상협력 및 교류확대 방안	8
가. 자원협력 강화 / 8	
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입찰시장 진출 / 10	
다. 한-남아공 FTA 추진 / 14	
라. 개성공단 해외판로 개척사업 / 16	
마. 對남아공 투자진출 확대 / 17	
4. 경쟁국의 남아공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19
가. 일본기업 진출전략 / 19	
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 22	
다. 시사점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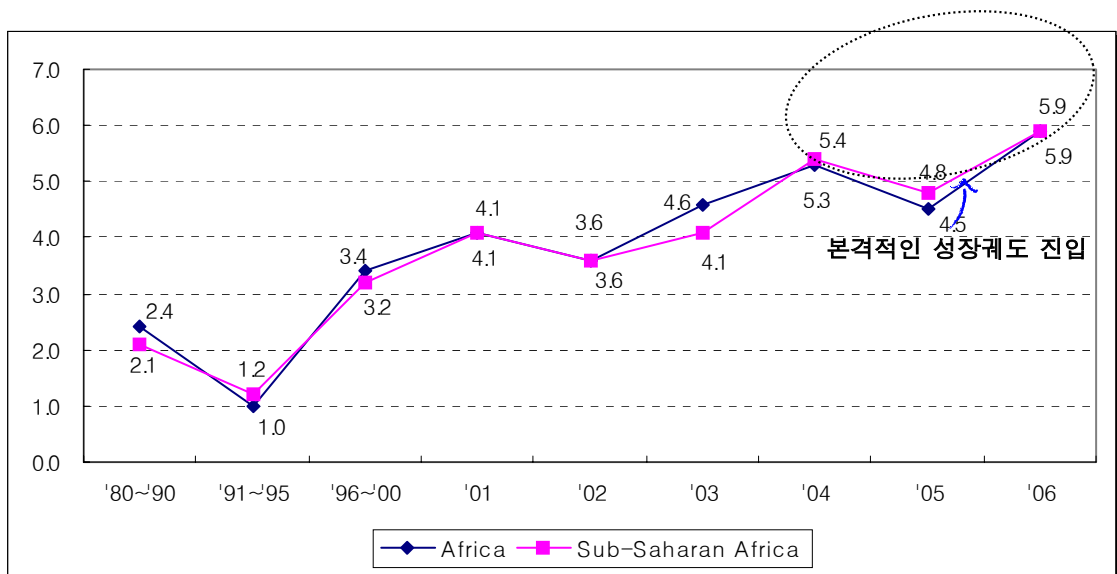
1. 서론 : 남아공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

□ 아프리카 경제권의 부상과 남아공의 경제적 위상

○ 아프리카 경제권의 부상 : **Afro-Pessimism** → **Afro-Optimism**

- 최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지구촌 마지막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Afro-Optimism** 확산).
-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내전이 종식되면서, 최근 연경제성장률 5% 이상으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음.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 UNCTAD Africa Development Section,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 남아공 : 아프리카 경제의 **Power-house**

-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GDP의 27%, 상품교역액의 23%를 점유

□ 남아공 경제의 성장잠재력 : Post-BRICs의 중심시장

- 남아공은 '94년 인종차별정책 철폐이후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美 상무부는 이미 '94년도에 세계 신흥시장(BEMs)에 남아공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기구들도 남아공을 개도국으로 분류함.

※ 세계 신흥시장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등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 흑인계층의 소득향상, 정부의 경제성장 의지, 2010년 월드컵 개최 등 경제성장의 요인이 충분함.

- 남아공 Stellenbosch 대학의 Martin 박사는 BRICs 이후 성장 유망 시장으로 남아공,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으로 구성된 SAINs를 제시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아공을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남아공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남아공의 전략적 중요성 :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국가로서 가치를 충분히 소유함.

- 남아공은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로 인해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관문 국가

임.

○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 특히, 남아공은 현재의 경제력과 함께 흑인계층 가처분 소득 증대, 2010년 월드컵 개최 등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프리카 경제의 빅뱅(Big Bang)을 주도할 국가임.

2. 남아공 경제동향

가. 경제현황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 : 아프리카 GDP의 27% 점유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국가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소비시장임.

- 2004년 기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2,131억불로서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음.

※ 국별 GDP 비중 : 남아공(26.9%), 알제리(10.7%), 이집트(9.7%), 나이지리아(9.0%), 모로코(6.3%), 튀니지(3.6%)

- 1인당 국민소득은 4,586불(2004년)로 충분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임.
- 상품 교역액은 1,011억불(2004년)로 아프리카 최대규모이며, 전체 아프리카 상품 교역액의 약 23%를 점유함.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구 분 \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총생산(US\$억)	1,107	1,654	2,131	2,341
1인당 국민소득(US\$)	2,432	3,595	4,586	4,992
상품교역규모(US\$억)	589	775	1,011	1,082

주1 : 2005년은 추정치

주2 :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원 : IMF WEO Database, WTO Trade Statics

□ 남아공 주요산업 : 광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1) 광산 :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발전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산업이 발전하였는바, 동 산업은 남아공 GDP의 6.3%, 수출액의 30%를 점유함.

※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광물 : 금, 크롬, 크롬철, 망간, 백금류, 바나듐, 질석

(2) 철강 : 남아공 최대의 제조업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임(제조업 생산량의 21% 점유).

(3) 석유화학 : 남아공 제2의 제조업

-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4) 자동차 :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지

-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이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지로 변모함에 따라 남아공의 주요산업으로 발전함(남아공 GDP의 7.1% 점유).

□ 남아공 교역구조 : 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

-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무역대국으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23%를 점유함.
- 2004년 기준, 상품수출액은 459억불, 수입액은 552억불로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나 세계무역 비중은 미미(0.53%)한 편임.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Platinum), 철합금(Ferro-alloys), 석탄, 승용차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휴대폰 등임.
-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에 남아공의 10대 수입 대상국에 진입하였음.
- 200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수출실적(9.6억불)을 넘어선 12.2억불로 남아공의 10위 수입대상국임.
- 이는 한-남아공 교역개시 이후 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 국가 중 플랜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순수 상품 수출액이 10억불이 넘는 국가는 남아공이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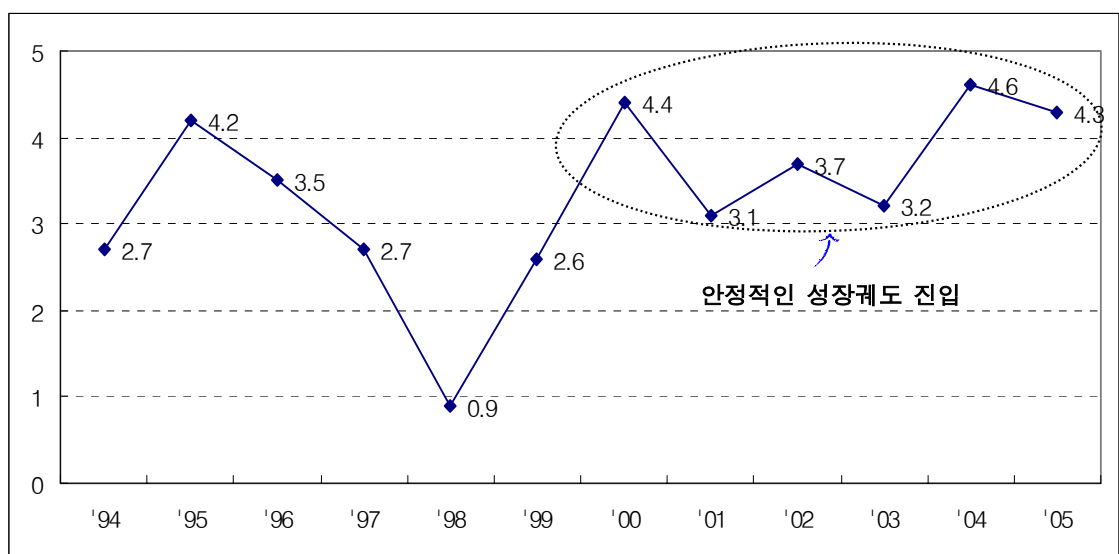
나. 최근 경제동향

□ 거시경제 동향 : 사상 최대의 경제호황

- 남아공 경제는 지난 '99년 이후 장기 성장국면에 진입
 - 최근 남아공 경제는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의 호조 요인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4년도에 남아공 경제는 4.6% 성장을 시현하여 지난 '84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2005년도에도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확대, 산업생산량 증가 등 호조요인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4.3~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IMF 및 남아공 재무부 추정치 종합).

[남아공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원 : 남아공 통계청(Stats SA)

□ 민간소비 : 높은 수준의 소비증가율 지속

- 남아공 GDP(지출측면)의 약 63%를 차지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는 남아공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 2004년도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6.1% 성장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설비투자 : 낮은 금리에 힘입어 공공/민간투자 증가세 지속

-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7.0%)에 힘입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5년 3/4분기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5%로 2/4분기 4.5%에 비해 3% 포인트 증가함.
- 공기업은 통신 및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지출이 급증하면서 2005년 3/4분기 투자지출액이 전 분기 대비 22.1% 급증하였음.

□ 물가, 금리 및 환율 동향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3년 중반 이후 안정세에 진입
 - 남아공 소비자물가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상승하였으나, 2003년 중반이후 물가상승률이 4% 이내로 안정세를 지속함.
- 금리 : 사상 최저수준의 이자율 지속

- 현재 남아공 기준금리인 **Repo** 금리는 7.0%, **Prime** 금리는 10.5%로 사상 최저수준임.
- 환율 : 1US\$ = 6.20 란드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
 - 남아공 환율은 지난 2002년 9월 1US\$당 10.50에서 현재의 6.0 수준까지 3년 동안 약 75% 평가절상이 됨.

□ 남아공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추진

- 남아공 정부는 최근 **2014년까지 연평균 6%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정책**을 발표함(2006.2월).
 - 동 정책의 목표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통해 남아공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높은 실업률(26.5%) 해소에 있음.
- **新경제정책의 주요내용** : 남아공형 뉴딜(New Deal) 정책
 - 항만, 철도, 및 통신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에 걸쳐 620억불을 투자할 예정임.
 - 동 정책은 27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될 예정이며 Gauteng, KwaZulu-Natal, Limpopo州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3. 통상협력 및 교류확대 방안

가. 자원협력 강화

□ 안정적인 자원 확보원으로서 남아공의 가치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탄/석유가스 연관산업과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남아공의 금, 망간, 크롬, 바나듐, 알루미늄규산염 등의 매장량은 세계 1위임.
- 풍부한 석탄매장량(매장량 7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 기술 및 석탄으로부터 액화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함.
- 한편 원자력 발전기술도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신형 PBMR(Pebble Bed Modula Reactor)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임.

[남아공 주요광물 매장 및 생산량]

광 물 명	매장량	비중(%)	세계 순위	생산량	세계 순위
알루미노규산염(Alumino-Silicates)	51Mt	37.4	1	165Kt	2
크롬(Chromeore)	5,500Mt	72.4	1	7,405Kt	1
금	36,000t	40.7	1	373t	1
망간(Manganese)	4,400Mt	80	1	3,501Kt	1
바나듐(Vanadium)	12,000Kt	44	1	27Kt	1
백금계광물(Platinum-group metal)	70,000t	87.8	2	266,150Kg	1
철광석	1,500Mt	0.9	11	38Mt	7
우라늄	298Kt	1.6	4	758t	10

자료원 : South African Yearbook 2004/05

□ 정부차원의 에너지 자원외교 강화필요

○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광업·에너지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국가임.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광업분야의 협력강화를 추진하는 각료급 **AMP(African Mining Partnership)** 창설을 주도하고 있음.

※ 2004. 2월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 이 외에 국영전력공사인 ESKOM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전역을 대상으로 전력생산 및 배전설비 건설에 참여를 추진 중임.

○ 자원개발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개발비용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광업진흥공사 등 정부기관 주도로 광산개발 참여, 자원협력 사절단 파견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중국의 對남아공 자원외교 강화

- 중국은 안정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 중임.
- 중국은 이미 2000. 10월에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을 발족시켜 경제협력 강화, 교육/과학기술 협력,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04. 9월 남아공 부통령 방문 시 남아공 Sasol社의 액화석유생산공장 건설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체결함.

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입찰시장 진출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요

- 개최시기 : 2010년 6월 5일 개막예정
- 남아공 월드컵 조직위는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2010년 6월 5일 18:00에 남아공 월드컵이 개막될 것으로 전망함(최종 일정은 월드컵 개막전 24~30개월 전에 확정).
- 개최장소 : 13개 도시(최종 개최도시 미확정)

- 현재 남아공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는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등 11개 도시이며, 사용될 경기장은 13개임.
- 이들 후보도시 및 경기장 수는 아직 FIF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올해 초에 최종 개최도시가 선정될 예정임.

□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 60~70억불

- 美 컨설팅 기관인 **Grant Thornton**社は 2010년 월드컵이 남아공 경제에 70억불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직접적인 GDP 증가분 : 36억불
 - 경기장 건설, 인프라 구축 등 직접지출 : 22억불
 - 입장권 수입, 세수 등 정부 수입증대 : 12억불
- 세계 4대 회계법인인 **KPMG**社は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60억불로 전망함.
 -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부문별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건설, 통신, 관광산업이 최대 수혜산업임.
 - 건설업의 경우, 경기장 건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예정되고 있어 최대의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 통신 분야 또한 방송시스템 구축, 통신망 확충 등 수요가 많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 관광산업의 경우, 월드컵 기간동안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남아공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릴

전망임.

- 월드컵 특수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인해 실업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월드컵 개최에 따라 **16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26.5%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이러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 외에 간접적 경제효과도 막대함.
 - 남아공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제고, 각종 국제경기 개최여건 제공,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증가 등

□ 월드컵 개최관련 주요 프로젝트

- 남아공은 교통, 도로,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발주된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요하네스버그-프레토리아-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총80km)을 연결하는 **33억불 규모의 도심고속철도(GauTrain) 건설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남아공 정부입찰 역사상 최대규모인데, 캐나다 및 남아공 기업들로 구성된 **Bombela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최종사업자는 올해 2월경에 선정 예정).
 - 우리기업은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통신 시스템, 열차 내

TV 모니터 및 초고속 인터넷, 열차-역사-경찰서를 연결하는 각종 보안장비 등의 공급자로 참가가 유망함.

Gautrain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Gautrain Rapid Rail Link Project
- 연결구간 : 요하네스버그-프레토리아-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총 80km)
- 발주처 : 남아공 Gauteng州(남아공 GDP의 1/3을 차지하는 상업중심지)
- 건설비용 : 33억불(남아공 정부입찰 역사상 최대규모)
- 우선협상 대상자 : Bombela 컨소시엄(올해 12. 15일 정식계약 예정)
- 건설기간 : 54개월(2010년 월드컵 직전 완공예정)

○ 이 외에 도로, 교통, 통신, 전력설비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지난 해 2월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월드컵 개최를 위해 도로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6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인 ESKOM은 2010년 월드컵을 대비,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 향후 5년간 150~200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러한 인프라 확충사업 이외에도 경기장 신축 및 보수, 방송시스템 구축, 보안 분야 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현재 남아공 월드컵 조직위가 FIFA에 제출한 경기장은 총 13개이나, FIFA와의 협의를 거쳐 10개 경기장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함.

- 2006년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이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에

투입된 비용이 약 15억유로였으므로 남아공도 경기장 신축 및 보수에 최소 16억불 이상은 투입해야할 것으로 분석됨.

- 남아공의 낙후된 방송시스템 개선 및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 한-남아공 FTA 추진

□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

- 남아공은 **Sub-Saharan**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확대를 위한 거점국가임.
 - 남아공은 **Sub-Saharan** 아프리카 전체 GDP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임.
- 남아공과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 남아공은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향후 경쟁국 대비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한-남아공 FTA 추진 내역
 - 지난해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정부가 양국간 FTA를 제안,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함.
 -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남아공의 경우 연구기관도 미지정 상태임(우리나라는 KIEP가 담당).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우리와의 FTA 체결대상은 남아공 1개국이 아닌 SACU(회원국 :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 실제협상은 남아공이 주도

□ 한-남아공 FTA 추진 전략

- 남아공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FTA 거점국가로 활용
 - 현재 우리정부의 기본정책인 외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위해서는 거점국가를 확보한 후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FTA 거점국가가 없으므로 남아공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FTA 추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남아공 FTA 추진 동향

- FTA 기체결국 : EU, EFTA, SACU
 - EU와는 지난 '99년 체결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2000. 1월부로 FTA가 발효 중임.
 - EFTA와는 '03년 초에 협상을 시작해 2005. 9월에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올해 7월에 정식 발효될 예정임.
 - ※ EFTA : 1960. 5월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SACU는 FTA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체(Customs Union)로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

과함.

○ **FTA 협상중인 국가 : 미국, MERCOSUR, SADC**

- 미국과는 '04.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재권, 서비스교역, 투자 부문에 대한 현저한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함.
-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는 '04.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상 진행 중임.
-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과는 2000. 9월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FTA 출범을 목표로 현재 협상 진행 중임.**

※ SADC(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 남부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92.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부아프리카 14개국

○ **FTA 검토 중인 국가 : 인도, 중국, 일본, 한국**

- 인도와는 연 내에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며, 중국과의 FTA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음.
- 일본과는 '05. 7월에 FTA 연구팀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가 '05. 6월에 FTA를 제안한 바 있음.

라. 개성공단 해외판로 개척사업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

로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남아공은 북한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조치가 없고 북한에 우호적이어서 개성공단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다대함.

□ 사업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 개성공단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됨.
 - 남아공 시장개척단 파견 : 개성공단 입주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남아공에 파견
 - 개성공단 구매단 파견 : 남아공 및 남부아프리카 바이어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제품 구매단을 개성공단에 파견
-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은 남북한 경제협력 및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마. 對남아공 투자진출 확대

□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투자환경

-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어 투자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임.
- UNCTAD는 최근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 남아공을 선정(다만, 연도별 FDI 유입액의 변동이 심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음.

[남아공 FDI 유입동향]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입액(US\$백만)	1502.3	887.9	6,788.7	756.7	762.5
증가율(%)	-85.3	167.7	-40.9	664.6	-88.9
GDP 비중(%)	1.5	0.8	5.5	0.5	0.5

자료원 : UNCTAD, BMI

□ 남아공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과 26.5%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FDI 유치에 적극적임.
 - FDI 유치 증대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인정,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투자환경의 개선에 주력 중임.
- FDI 유치를 위해 산업개발지역(IDZ) 조성
 - 남아공 정부는 FDI 유치증대를 위해 **Coega, East London, Richard's Bay**,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지역에 산업개발지역(Industrial Development Zone)을 조성 중임.
 - IDZ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기계설비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며, 생산과정에서 남아공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 남아공 투자진출 :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의 발판

-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1.5억불로(신고 기준) 미미한 수준임.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직접투자는 주로 대기업들의 남아공 현지법인 설립 위주이며 이도 대부분 판매법인임.
-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對남아공 투자진출 활성화가 필요됨.
-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간 시장통합에 적극적임.
- ※ 현재 아프리카에는 SADC, COMESA, EAC 등 11개의 경제블록이 존재
- 이처럼 아프리카 경제권은 각종 경제협력체를 통해 시장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공략이 중요함.
-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남아공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거점을 확보한 후, 아프리카 시장공략을 가속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4. 경쟁국의 남아공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가. 일본기업 진출전략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은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남아공 시장 진출전략을 조사

□ 일본기업의 기본 전략 :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시장공략

- 일본 기업(특히, 상사)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함.
 - 남아공에 대한 인식을 전환, 소극적인 Trading 업무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임.
 - 일본 기업들은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남아공 시장변화를 간파하여 현지화 전략만이 남아공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함.
 - 이는 남아공 흑인정권 수립 이후 추진하고 있는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에 따라 현지 흑인 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임.

흑인경제 육성정책(BEE)이란?

- '94년 남아공 흑인정권 수립 이후, 인종차별정책 기간동안 소외되었던 흑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산업별 흑인지분 비율 및 종업원 비율을 명시한 점수제(BEE Scorecard)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에게 정부입찰 및 금융지원에 있어 우선권 부여
- 이러한 제도로 인해 외국기업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외국기업의 경우 대부분 남아공 흑인기업(BEE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입찰에 참여

□ 주요 사업영역 : 광물자원 확보, 입찰참여, 고가 제품군

- 일본기업들은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남아공 광산 기업 지분참여를 통해 광물자원을 수입 중임.
 - 이는 지분참여 없이 단순 광물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사들과 차별되는 것으로서, 현지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 광물자원 수입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은 높은 기술력 및 현지 BEE 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입찰에 참여 중임.
 - 스미모토 상사는 남아공 국영 전력기업인 Eskom社의 전기 제품 공급입찰에 성공한 바 있는데, 동사 담당자는 입찰성공 요인으로 높은 기술력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꼽음.
 - 입찰 참여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NEC社는 현지 BEE 기업(Gijima社)과 조인트 벤처를 형성해 남아공 내무부의 지문인식기 입찰에 성공함.
- 고가제품 시장으로 타겟시장 이동
 - 일본 기업들의 경우, 일반 전기·전자제품은 우리나라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상류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고가제품 마케팅 활동에 주력함.

□ 일본 기업들이 바라본 남아공 시장

-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시장
 -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남아공을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시장으로 인식함.

○ 관계중심(Relationship-based) 시장

- 일본 기업들이 남아공 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남아공 현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 이전에 현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일본 정부는 외교적 유대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1년에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라는 협력 포럼을 발족한 바 있음.
- 동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원조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측면 지원함.

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 중국의 對아프리카 경제외교 정책 기초 : 안정적인 자원 확보

- 정치적 협력관계 중심 → 경제적 협력관계 중심으로 전략 변화
- 과거 중국이 사회주의 동맹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석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유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임.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창설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hina-Africa Cooperation Forum)을 발족(2000.10월)함.
- 동 포럼은 양 지역간 경제·사회발전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상호이해 증진, 경제협력 강화,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 문화 교류 증진 등이 주요 목적임.
- 동 포럼은 3년마다 중국과 아프리카를 번갈아가며 개최되는데, 중국은 동 포럼을 對아프리카 경제외교의 주된 채널로 활용 중임.

□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지도급 인사초청, 차관제공 등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중임.
- 2004년 2월 후진타오 주석은 가봉, 알제리 등을 방문, 차관 제공을 통해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함.
- 이 외에도 앙골라, 채드, 콩고,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원유공급 계약, 유전 지분매입 및 개발권 확보에 주력 중임.

□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따라 아프리카 원유도입 비중 증가

-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친 결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도입 비중이 대폭 증가함.
- 2004년 기준 중국의 전체 원유수입액 중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00억불로 전체 원유수입액의 28.7%를 점유함.
- 이는 과거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원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중국의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단위 : %)

주요국	2003년	2004년	주요국	2003년	2004년
<u>중동</u>	50.9	45.4	<u>유럽/남미</u>	9.6	14.3
사우디	16.7	14.0	러시아	5.8	8.8
오만	10.2	13.3	노르웨이	1.0	1.6
이란	13.6	10.8	브라질	0.1	1.3
<u>아프리카</u>	24.3	28.7	<u>아시아</u>	15.2	11.6
앙골라	11.1	13.2	베트남	3.8	4.4
수단	6.9	4.7	인도네시아	3.7	2.8
콩고	3.7	3.9	말레이시아	2.2	1.4

자료원 :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5

□ 對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분야 협력 강화

○ 무역부문 : 관세혜택 부여, FTA 추진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불균형 시정 및 상품교역 확대를 위해 최빈 개도국들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확대 중임.
- 상품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아프리카 상공회의소(China-Africa Joint Chamber of Commerce)를 설립할 예정임.
-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함.

○ 투자부문 :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진출 적극지원

-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투자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특혜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확대에 주력함.

○ 무역·투자분야 협력강화 결과,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액 급증

-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규모는 '90년대 후반에 25억불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최근 수출액이 120억불로 급증(2004년 수출액 기준)함.
- 2004년 기준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약 6%로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일본 3.5%, 한국 2.3%, 인도 2.1%)임.

□ 사회 인프라 건설 및 부채탕감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 예측화

- 중국은 아프리카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여, 아프리카 경제를 중국화시키고 안정적인 상품수출 기반을 구축

중임.

- 최근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확대를 위해 “중국-아프리카 사회 인프라 협력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임.
-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부채를 탕감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창설 이후 지금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對중국 부채 중 1억불을 탕감함.

다. 시사점

□ 남아공 및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

-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등이 전략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프리카를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낙후된 대륙 정도로 인식함.
-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의 교역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를 역외 시장 또는 재고처리 시장으로 취급함.
-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프리카 대륙이 더 이상 빈곤에 허덕이는 “어두운 대륙”이 아닌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떠오르는 대륙”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

- 중국,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 중임.
- 이처럼 중국 및 일본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함.
- 우리도 하루빨리 정부차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채널 구축 필요

- 중국, 일본은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한 상태인 반면, 우리나라는 협력채널이 부재한 상황임.
- 중국은 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일본은 TICAD라는 협력 채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채널이 부재하여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존재함.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채널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정부차원에서는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작성자

◆ 고일훈 과장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 신순재 과장 (해외조사팀)